

大學圖書館의 圖書購入費問題

發表者 朴 永 俊
(東國大學校圖書館司書)

<一>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心臟이요 頭腦이다. 圖書館이 없는 大學이 있을 수 없고 圖書 없는 圖書館이란 生覺할 수도 없다. 圖書館은 大學教育에 있어 그 任務가 重且大함은 긴 說明을 드릴 必要가 없을 줄 안다. 圖書館에 반드시 갖추워야 할 緊要事項이 許多하지만 그中에서도 核心은 亦是 圖書館 資料 即 圖書이다.

이러한 前提는 반드시 豫算이 隨伴됨은 勿論이다. 豫算中에서도 資料를 購入해야 할 附帶條件이 恒常앞서고 있다. 그것이 即 圖書購入費 問題이다. 西洋의 境遇는 資料의 範疇가 相當히 넓어져 Microfilm, Microcard, Slide, Map 等等이 모두 圖書費에 舍히되어있다. 우리나라 大學의 財政的 實情으로 보아서 先進國과 比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圖書와 刊行物は 大學의 面貌를 갖추기 爲해서라도 어느程度는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筆者가 卑見을 提示해 보고저 하는것도 最少限의 資料, 얼마큼의 線을 維持해야되겠다는것을 摸索하여 보려는데 目的이 있으며 그러므로써 보다니는 大學으로 發展코져 함이다. 可能한限 推想的인 面을 떠나 보다 科學的이고 實際的인 面을 置重하여 推充해 보려는 것이다.

<二>

여기서 于先 海外的 事情中 美國의 大

學에서 比較的 그規模가 中間인 Kentucky 大學을 들어 年間增加圖書現狀을 Monographs, Serials and Sets, Miscellaneous Materials 別로 나누워 보던 다음과 같다.

〔資料 1〕

Acquisition Department: Processed Material Acquired by purchase, gift and exchange (1962/1963)

Monographs

Purchases	9,314 titles	9,948 volumes
Gift and Exchanges	4,470 titles	5,131 volumes
Total	13,784 titles	15,079 volumes

Serials and Sets

Purchases

273 new titles	8,324 vols and pieces
4625 old titles	

Gifts & Exchanges

401 new titles	11,353 volumes & pieces
5,417 old titles	

Total 10,716 titles 19,677 vols & pieces

Total Monographs, Serials and Sets	24,500 titles	34,756 vols & pieces
------------------------------------	---------------	----------------------

Miscellaneous Materials (Both Purchase and Gift to Exchange)

Microfilm	90 titles	490 reels
Microcards	2,682 titles	7,633 cards
Maps	20 titles	69 sheets
Manuscripts		195 pieces

Broadsides and Prints	92 titles 98 pieces
Phonograph Records	11 titles 11 records
Expenditures(1962—1963)(年間圖書館豫算)	
Salaries	\$ 6357.55 48%
Books	\$ 5495.34 42%
Periodicals	\$ 452.50 0.34%
Newspapers	\$ 157.86
Binding	\$ 316.79 0.24%
Supplies	\$ 33.60
Library of Congress Card	\$ 298.92
Travel	46.34 \$
Total	\$ 13,158.90

위의 表에서 우리의 注目を 끌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年間的 藏書增加數로서 34,756冊中 圖書만도 15,079冊이 된다는 事實이다. 雜誌의 경우는 購入보다도 交換 및 寄贈이 優位를 차지하고 있음은 一般的인 例로서 特殊性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Monographs의 境遇는 오히려 倍로 推算되어 藏書增加에 置重하고 있음은 勿論 資料購入費와 購入으로 增加된 藏書數를 比較하여 보면 質에도 많은 留意가 되었음을 알수있다. 年間的 增加圖書 15,079冊中 9,948冊이 購入되는 圖書로서 66%를 點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大學圖書館에서는 Miscellaneous materials가 圖書費에 含有되어 그 數가 적지 않으며 亞細亞 地域 特히 우리나라의 現狀과는 顯著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資料購入費로는 圖書館의 年間人件費보다 많은 金額이 使用되고 있으며 이中 42%는 純전히 圖書만을 購入하는데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隣接國인 日本과 自由中國의 代表的인 大學圖書館을 例를 들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과 比較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資料Ⅱ에 나타난것 中 自由中國의 臺灣大學의 경우를 보면 學生數에 比해서 藏書數가 12冊으로서 가장적인 數字를 나타내고 있으나 年間的 資料購入費를 보면 위와는 反對로 韓, 日, 中 三個國中 個人當 圖書購入費가 가장 많음을 알수있다.

이는 自然的 趨勢이며 當面課題를 履行하는 健全한 方向으로 看做된다. 個人當別로 圖書費를 比較하여 보면 日本과 中國은 別로 差異가 없으나 韓國의 現實은 對照的으로 4~6倍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現狀은 두말 할것도 없이 實際的으로 圖書館에 對한 關心度가 높은 外國에 比하여 韓國은 如前히 圖書館이 輕視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 現物價의 事情에 比해 1人當 1冊도 되지못하는 圖書費는 寒心하며 苦笑를 禁치 못할 일이 아닐수 없으며 여러모로 檢討되고 反省되어야 될 處일이다.

大學圖書館設置基準令에 依한 藏書의 增加와 資料購入費의 增加에 對하여는 決코 疎忽히 生覺할수 없는 일로서 外的으로는 藏書와 資料購入費가 많이 增加되어 圖書館의 發展에 큰 影響을 미친것 같으나 그實은 正反對의 現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筆者의 倅見으로는 이제라도 우선 藏書數에 對한 모든 規定을 白紙化하고 嚴正한 監視下에 現實에 適應될 수 있는 圖書만을 中心으로 藏書數에 對한 規定이 새로히 現實情에 맞게 規定된다면 藏書와 資料購入費는 勿論 大學圖書館發展에 새로운 曙光이 빛일줄 믿는다. 大學圖書館에 對한 大學設置基準令을 中心으로 많은 矛盾의 除去와 質的으로 좋은 圖書를 보다 많이 購入할 수 있는 方法에 對하여 여기에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資料 II]

韓 日 中 重 要 大 學 圖 書 現 況 比 較 圖

대학명	종별			계	연간수입	봉사 대상	1人當 배당 책수	대학총예산	도서관예산	도서관에 산차로구입비	1人當 당 액	비 고
	장서	종수	양서									
東京大學	304,331	233,960	538,291	3,018	13,063	44册	7,838,286,000	56,997,000	8,383,000	1,000圓	1962現在	
京都大學	278,328	142,765	421,093	11,654	9,752	42	—	30,731,000	8,794,000	880	"	
早稻田大學	484,370	251,337	735,707	14,028	35,000	21	2,082,714,000	78,850,000	25,800,000	1,500	"	
慶應大學	298,361	130,481	428,842	7,148	10,783	43	941,592,000	40,076,000	15,000,000	1,500	"	
臺灣大學	720,000	—	720,000	15,000~20,000	6,500	11.7	—	1,170,000	1,170,000	—	1961現在	
서울대학	456,296	159,326	615,622	5,410	—	12	—	7,605,000	3,554,900	1,350	1964現在	
고려대학	95,602	71,954	167,556	3,808	7,245	24	—	4,515,874	1,500,000	200	"	
연세대학	102,445	62,009	164,464	5,904	6,307	—	—	—	—	—	"	
이화대학	66,000	65,000	131,000	3,900	8,300	17	—	2,750,000	2,500,000	300	"	
동국대학	83,315	17,837	101,152	2,589	4,935	22	—	4,753,290	1,195,500	200	"	
성균관대학	85,625	31,220	116,845	7,609	7,526	14	—	2,478,000	2,243,300	300	"	
중앙대학	45,349	75,806	121,155	4,252	—	—	—	5,000,000	3,000,000	—	—	
한양대학	46,120	61,037	107,157	3,495	—	—	—	—	—	—	—	
경희대학	60,115	48,186	108,301	26,095	—	—	—	2,650,000	2,500,000	—	—	
비 율	4:1	4:1	—	2:1	3:1	2:1	—	—	—	2:1	4:1	—

<三>

藏書의 基準令에 對하여 冷徹하고 보다

現實의으로 附合되기 爲하여서는 海外의 事情을 적으나마 例學하여 參考로 하지 않을수 없다.

資料 Ⅲ

藏書數로 本 基準

韓國大學設置基準令	日本大學改善要項	日本私立大學改善要項	美國圖協基準
1人當 30冊	學生 1,000名 ① 人文系 50,000 ② 自然系 30,000 1人當 人文系 50冊 自然系 30冊	學生 1,000名 1人當 50冊 5,000名 1人當 40冊 1,000名 1人當 35冊	600名 50,000冊 1人當 83冊

從前의 우리나라 大學設置基準令의 內容을 보면

「大學에서는 學生 1人에 對하여 30卷以上의 圖書를 備置하되 科當 5,000冊 以上이 되어야한다. 但 初級大學과 二年制 師範大學에 있어서는 各其 3分之1로 한다.」로 되어있어 韓國의 大學에서는 學生 1人當 30冊을 圖書館에 備置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大學圖書館에서는 質의으로는 아무런 考慮도 없이 이러한 基準令에만 맞추기 위하여 쓰레기 책들이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最近圖協의 統計에 나타난 全國大學圖書館의 藏書數에 對한 現況을 보면 10萬卷 以上의 藏書를 備置하고 있는 圖書館은 不過 9個大學 뿐이며 5萬卷 以上이 10個館, 4萬卷 以上이 2個館, 3萬卷 以上이 7個館, 2萬卷 以上이 12個館이고 其外는 全部 萬卷 以下이다. 이와 같은 統計數字로 換算해보면 그래도 大學基準令에 適應될수 있는 大學은 事實上 없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參考로 基準令에 適應되어야 할 藏書와 圖書費에 對하여 10萬卷 以上의 藏書를 가

지고 있는 大學中 5個大學을 選定하여 대략 그 實態를 調查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平均藏書數가 130,000卷이다. 學生數는 7,000名가량이 된다. 3年以內에 基準에 맞추려머는 不足藏書數는 80,000卷이되며 年間 25,000卷 以上의 藏書가 增加되어야 된다는 結論이 된다. 이것을 다시 冊當 500원씩만 計算해도 年間 1,250,000원이라는 圖書購入費가 必要하게 됨을 알수 있다. 이런 無理가 數字的으로 顯著히 나타나므로 大學基準令을 強行하는 施策이던 이의 副作用으로 또다시 圖書의 質이 無視되며 豫期치 못한 많은 不美스러운 일이 續出될 可能性이 많으므로 다음의 세가지點이 特別 留意되어야 될 줄 믿는다.

<四>

첫째 大學圖書館의 認識問題이다. 解放後 兩後竹筍格으로 亂立한 韓國의 大學現實은 于先建物을 지어야 한다는 外廓的인 要素에 置重하였다. 그러므로 大學은 建物이 있고 教授단 있으면 된다는 式的 思考方式이 矛盾이다. 眞正한 大學이란 充

實한 內容, 그중에서도 圖書館이 第一로 重視되어야 함은 贊言을 要치 않은 바이다

둘째 文教部의 大學設置基準令이 法的인 效果를 檢우기에는 實質上 기준이 若干 높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大學이 量質兩面으로 兼備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大學에 備置되어야 할 圖書다운 圖書는 別로 없이 거의 死藏에 가까운 冊들을 書庫에 간직하는 羊頭狗肉式을 免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大學設置基準令의 法的効력과 立法理念을 살리기 爲하여는 圖書購入費를 爲하여 學生들의 每學期的 登錄金中 圖書費項目을 따로 特別히 計定할것을 成文化하고 이를 文教部의 指示로 施達하여 實施토록 함이 必要하다.

셋째 大學當局者의 圖書購入費策定에 對한 留意點이다. 적어도 大學에서는 中國의 臺灣大學의 例와 같이 授業料와 거의 同額에 該當되는 全額이 圖書購入費로 大學의 豫算에서 別途로 策定되고 交換 및 受贈 業務도 圓滑히 하여 적어도 大學다운 面貌를 圖書館에서 찾도록 해야 할것이다

끝으로 美國의 圖書館 學者 Guy R. Lyle 氏는 그의 著書 College Library Administration에서 「다른 資料는 고사하고 어떠한 大學이던 嚴選된 圖書 5萬卷은 備置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主論이다.

우리나라의 現實에 立脚하여 볼때 數가 5萬을 넘는 大學이 없는것은 아니나 果然 質적으로 優秀한 良書를 제대로 具備한 大學이 얼마나 되는지가 疑問이다. 從來의 基準令에 依한 副作用으로 量에만 置重하던 傾向은 앞으로 반드시 質로 轉換되어야 할것이며 質로 轉換되기에 앞서 圖書購入費에 對한 特別한 關心과 果敢한 斷案이 내러지기 前에는 韓國의 大學은 「大學다운을」 찾기어려울것이다. 다시금 「圖書館의 새로운 認識」 「大學設置基準令의 合理化」 「圖書購入費에 對한 特別한 豫算措置」를 促求해 두는 바이다. (끝)

參 考 文 獻

1. 도철월보(1962. 12月號) (1963. 12月號) 韓國圖協刊
2. 1964年度 韓國의 圖書館 "
3. 1962年度 日本의 圖書館 日本圖書館協會
4. The University Library, by Wilson & Tauber
5. College Library Administration, by Guy R. Lyle
6. Annual Report University of Kentucky Library 1962-1963
7. Library Handbook, National Taiwan University Library
8. 國立臺灣大學校概況, 國立臺灣大學校刊